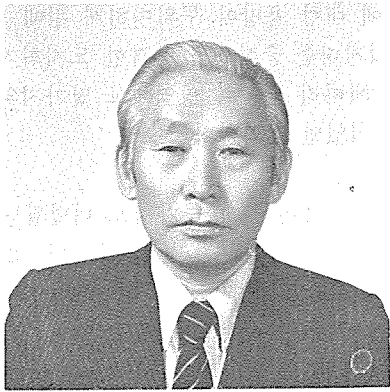


現代建築 思潮의 變遷

金熙春 (서울대학교 工科大学 教授)



약력 소개

- 학력 및 경력 /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수료 / 조선총독부 영선계수 / 서울공대 건축학과 교수 / 한국건축가협회장 / 대한 건축 학과장 / 국전운영위원.
- 주요작품 / 서울농대교사·강당 / 서울공대기숙사 / 서울사대과학관·도서관 / 워커·힐 주건물 / 수원 종합위 호원 / 경기도청사 / 서울대 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 / 정신 문화연구원 / 한국태양에너지 태양열 주택 모델하우스 및 보급센터
- 수상경력 / 서울특별시 문화상 / 대통령 표창장 / 대한 건축학회 작품상 / 국민훈장 무궁화장

本稿는 지난 3월 13일 서울대학교 26동강 의실에서 있었던 金熙春교수의 정년퇴임 고 별강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여러해 동안 우리나라 건축계에 큰 공로를 남기고 이제 대학강단에서 물러선 老教授의 뜻을 기리고자 원문 그대로 적는다.

/ 편집자 /

● ‘현대’라고 하는 시대가 갖는 비극의 근원은 기술문명의 진보와 생물체로서의 인간본연이 갖는 요소와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가 현재와 같은 고도의 기술문명전 속에서 그 삶을 영위하게 된 역사는 전인류사의 과정에서 극히 짧은, 최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인 그 짧은 기술문명사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만든 인위적인 문명의 스톡(Stock)은 놀라운 가속도로 축적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인간 자신이 그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과 지식, 정보 등의 폭발적인 스톡에 대한 제어능력을 상실하고 억압당하고마는 자기당착(撞着)의 모순에 빠져있는 듯 합니다. 이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보복의 섭리일런지도 모릅니다.

● ‘현대’라고 하는 시대의 출발을 단적으로 정의내리기는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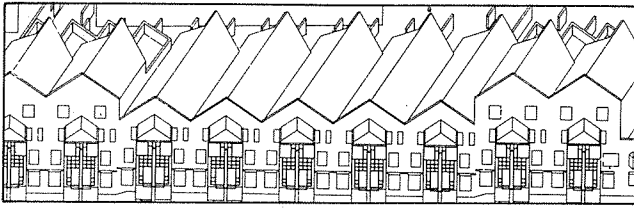
‘현대’를 누리는 세계의 각 지역에 따라서 그 ‘현대’의 출발과 ‘현대’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구에 있어서 廣意로서의 현대의 출발은 봉건주의의 붕괴와 함께 근대자본주의의 논리에 바탕을 둔 시민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산업혁명을 전후한 시기가 아닐까 하며 보다 좁은 의미로서는 20세기 이후 기술문명 사회로의 급진적인 발전을 한 1950년대 이후를 지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것은 기계기술문명에 바탕을 둔 ‘문명사회(civilized society)’에서 전자기술문명에 바탕을 둔 ‘문명이후사회(postcivilized society)로의 전환인 것이고 혹은 ‘후기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 내지는 ‘전자기술사회(electrotechnique society)’, 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년대 초기에 있어서는 풍요로운 ‘기술문명’ 시대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긍정적이고도 낙관적인 시대관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이무렵 선진국의 경제성장의 상승세는 이러한 긍정적인 관점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세계도처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분쟁의 불안과 개발일변도의 산업기술상의 진보주의 및 인구증가와 도시확대화 등으로 야기된 자원고갈 및 환경문제와 결부된 세기말에의 미래상등은 양차대전 이후에 또다른 비관적인 전망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에의 구체적인 인식은 1970년대 초반, 지구상의 가속적인 성장과 진보가 갖는 한계가 냉철하게 가측적(可測的, operational)으로 보여졌고, 나아가서는 범세계적 차원의 성장에 대한 ‘계획적 제어’의 공동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지구의 성장은 늦어도 향후 100년 이내에 정지내지는 급격한 퇴보의 징후를 보이게 된다



는 연구결과로부터 출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공동의 궁극적인 이익과 생존을 향한 성장제어의 노력보다는 오히려 '자국주의(自國主義, nationalism)에 입각하여 개발과 진보일변도의 성장가속화를 더욱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며, 이 결과 세계도처에서 나타나는 인구, 자원, 식량, 오염, 그리고 기상이변 등 환경문제의 제반問題들은 연구보고서의 가측(可測)들이 점차로 현실의 징후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향후 20년 이내에 근 100%의 인구증가가 예측되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인구의 증가분(增加分)을 담는 용기로서의 정주환경(定住環境)의 터전을 구비하는데 있어서 많은 물량과 재정의 투입이 예상되는 동시에 정주터전으로서의 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의 침식이 낚는 '인간생태학'(human ecology)적 불균형과 그로인하여 야기되는 환경문제에의 대처 또한 심상치않는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뿐인 우리 '국토공간'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의 노력과 선험(先驗), 그리고 시행착오를 주시하여 보다 질서있는 정주환경의 터전으로 개발할 것인가하는 양자택일의 과제는 이시대 우리한국인 모두에게 남겨진 주요문제인 것입니다.

● 한편 건축이란 인간의 모든 정주활동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 속한 지역의 자연 및 인문의 제반 시대배경이 종합되고 응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건축의 본질에 관하여 일찌기 건축사가(建築史家) S. Giedion은 「어느시대의 성격은 그 시대가 아무리 위장하려하여도 건축으로 반영」되고 만다는 '시대의 색인'인 것으로 단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현대건축이 잉태되어 나온 여정(旅程)을 개괄(概括)하고 이러한 여정의 결과로서의 현대건축의 향방에 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 주지하다시피 현대건축의 모태(母胎)로서, 또는 그의식의 근원으로서의 서구의 근대건축은 산업혁명의 발달과 함께 태동되기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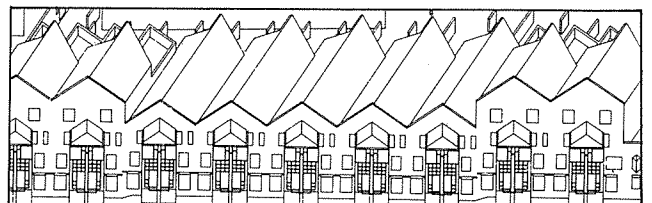
물론 근대건축의 잠재적인 의의를 중세적인 신본(神本)의 건축의지에 대하여 인본(人本, human)의 인간해방의 건축관에 둔다고 하는 넓은의미의 해석을 전제하게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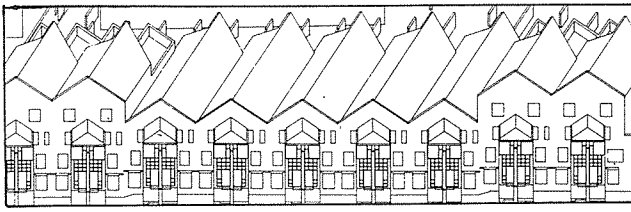
그 진원(震源)은 일찌기 '르네상스' 건축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근대건축의 출발은 통념적으로 산업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두게되며 이무렵 종교개혁과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봉건질서는 붕괴되고 중상시민계급이 태동하면서부터 서구는 본격적인 근대화로의 여정에 오르게 되었으며, 이는 산업혁명으로써 가속화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시민의식의 근대화가 낚은 필연적 진보의 수단으로서의 공업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인 것이지 산업혁명 그 자체가 근대화를 낚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이 근대건축을 낚은 것이 아니라, 그 산업혁명이 요청되게된 근대화의 시대배경의 요망에 부응하여서서히 근대건축의 양상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사회로의 이행(移行)으로 인하여 중상시민 계급의 주도아래 근대 자본주의가 전개되게 되었으며, 경제기반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욕망이 무의미하게 됨에 따라 상권(商圈)과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야기되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건축의 영역에도 몇가지의 근본적인 변화를 낚게 되었던 것입니다.

● 그 변화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으며, 그 한가지는 새로운 산업사회적, 기술적인 요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상(建築像)을 모색하고자 하는 方向과 이에 대하여 다른 한가지는 반산업주의적이고 복고적인 과도기적 사실(過渡期的事實, transient facts)로서 나타난 건축의 여러가지 경향으로써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충적인 두 경향의 이행은 19세기의 근대건축으로 하여금, 다양한 'ism'과 이들 'ism'의 구현을 향한 행동적인 건축운동으로서의 다양한 'movement'의 난립시대로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S. Giedion이 일컫는바 구성적사실(構成的事實, constituent facts)로서의 전자의 경향이 20세기 건축이념의 모태로 이어지고, 후자의 경향은 그러한 전자의 이행 과정에 대한 반작용적 징검다리로서의 과도기적 역할밖에 다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 여하튼 건축의 영역에서는 주로 후자적인 경향이 주도하던 19세기 전반의 건축에 대해서 비로소 전자의 경향이 새로운 사상과 이론의 배경위에 본격적으로 수립된 것은 1850년대 이후가 되며, 「수정궁」(J. Paxton, 1851 런던박람회), 「붉은집」(W. Morris, 1859) 등이 건립된 이





무렵이 근대건축의 2차적 기점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 이미 기계에 바탕을 둔 산업사회의 기틀이 완성된 이 시기에 있어서 근대적인 공학기술의 발달과 문예사조의 세기말적인 전통 등의 시대배경아래 나타난 ‘건축과 기술 및 장식’ 등에 관한 혁신적인 사상을 이론화한 John-Ruskin, 그리고 예술의 민중화를 주장한 William Morris의 「Art & Craft Movement」등, 근대건축의 선구적인 사상의 바탕은 근대건축의 본격적인 양상을 나타나게 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 이러한 양상들은 첫째로, 근대공학의 기술과 철, 유리,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건축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건축의 장식성을 배제하고 「用的美」를 주장하는 Otto Wagner의 ‘기능주의적 필요양식’(Natzstil) 개념이 실제의 건축물을 통하여 구현되게 되었으며, 셋째로 이상의 기술과 이념이 미국의 산업 대도시들에 있어서 높은 지가의 대지위에 값싸고 큰 규모의 건물을 짓고자하는 건축주의 이윤논리에 잘 영합되어 선구적인 근대건축가 L. Sullivan등을 필두로하는 「시카고파」의 건축운동으로써 본격적인 근대건축의 모습으로 구현되게 되었다는 사실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진보적인 시대의 당연한 부산물로서 후자의 경향으로서 반진보주의적이며 보수적이념의 한 단면으로서 ‘Arts Nouveau」 및 John Ruskin의 기계생산성의 배격등 과도적 사실들의 양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1920년대를 전후하여 건축의 영역에 있어서 사조의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19세기 건축사의 보고(寶庫)속에서 재빨리 20세기적인 건축의 眞價를 찾아내어 건축으로 구현한 Le Corbusier, Mies Van der Rohe, F. L. Wright, A. Aalto등 거장건축가의 탄생인 것이며, 이로부터 「영웅주의」 「국제주의」 「기능주의」등으로 불리는 근대건축의 3차적인 기점을 맞게 됩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체제, 20세기의 미학, 실용적 합리주의의 윤리관, 그리고 20세기의 기술 등 ‘가장20세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들을 건축이라는 총체를 통하여 가장 잘 종합한 천재들이었으며, 이들의 천재성으로 말미암아 근대건축은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 성숙기의 이념과 양상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면 부정되지 못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들의 이념은 확일성, 단순성 등 기계미와 편익성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미학과, 보편성과 규격화라고하는 실용주의의정신을 건축의표현으로써 잘 소화해내었던 것이지만, 이들은 기능과 ‘건축공간과 형태’ 사이의 합목적적 연관을 추구하는 건축작업의 과정에 있어서 그 건축속에 내포되는 현실적인 인간의 관점에서보다도 그들의 이상주의 내지는 개인주의적 야심과 독선에 우선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건축을 지칭하는 「영웅주의」라는 칭호속에 내재하는 비판적인 견해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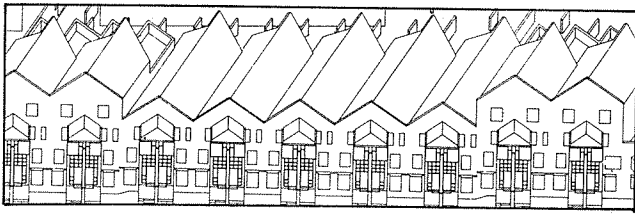
● 하지만 이들 거장 건축가들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공적은 건축의 문제를 최초로 도시와 주거의 문제로 확대시킨 의지인 것이고 이러한 선견자적 의의는 1928년 「라사라」에서의 결성이후 1956년<유고>의 「도부로부」에서의 마지막 10차회의에 이르기까지의 CIAM운동을 통하여 범세계적인 건축 및 도시계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CIAM은 거장건축가들로 성숙된 근대건축운동의 기본양상을 국제화, 보편화시키는 매질(媒質)일 수 있었으나 이들의 선지각자적인 영웅주의로 2차대전이후 급변하는 시대상과는 서로 적응되지 못하고, 결국 CIAM의 해체와 함께 현대건축으로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 이 무렵 세계는 전술한 바와같은 소위 후기 산업사회 또는 전자사회로 이행하게 되며 이러한 이행의 반영으로서 「전체보다 부분을, 고정보다 변화를, 개방적 미학으로, 조직보다 개인을」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최후 CIAM회의를 향하여 준비한 훗날 Team 10의 건축가들인 P. Smithson, G. Candilis, A. Josic 등의 거장건축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국제주의 건축운동은 종식을 고하게 되고 이로부터 현대건축의 기점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후의 현대건축의 경향은 지극히 혼돈스러워서 한마디로 대별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그것은 근대건축의 이념과 방법의 바탕위에 현대적인 요구를 적용 진화시키고자 하는 「후기근대주의」(late modernism)적인 경향과 근대건축의 이념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그 공간의 의미와 구법(構法)의 방법을 포기하여 건축을 만드는 문법을 원점에서부터 재편성하고자하는 「탈(脫) 근대주의」적인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자의 경향으로서는 New Brutalism, Modern Clas-





sicism, Neo Baroque 내지는 Neo Expressionism 등으로 불리우는 'ism' 들이 있을 수 있으며, New Brutalism 은 P. Smithson 부처, J. Stirling 등으로 대표될 것이며, 이는 구조 및 설비체계, 그리고 재질의 소박하고 야성적인 노출을 주장하여 현대기술에 잠재하는 비인간성을 건축미학으로 상징하여 근대건축의 세련됨과는 무언가 다른 '현대적'인 것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신세대 건축가들의 주장이지만 그러한 야성의 미학이 그 건축속의 인간에 주는 의미에 관하여 그들은 별반 심각한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한 듯 합니다.

Modern Classicism은 P. Johnson, Mies Van der Rohe 등으로 대표되며, 근대공학으로써 고전건축미학을 담고자 합니다.

Neo Expressionism은 근대건축의 이념을 표기하지 않은채 건축가 개인의 감성과 개인성을 강하게 근대건축의 문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Paul Rudolph, Minoru Yamasaki, Eero Saarinen, Louis Kahn 등의 건축가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상업주의적인 대형복합건물의 요청과 함께 너무도 보편화한 근대건축의 문법을 개인 건축가의 손으로서가 아니라, 다수 건축전문가의 조직력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그 설계의 능력을 구사하여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완벽한 건물을 만들고자하는 방법이 소위 Total Design이라고 불리우는 건축설계 조직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19세기 이후 탄생한 건축가의 개념 및 그 존재양식에 대한 일대개편이자 도전의 한 징후로까지, 우리는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한편 「탈 근대주의」적인 현대 건축의 경향으로서는 1960년대를 그 극성기로 하는 Archigram, Metabolism, GEAM 등의 전위적인 건축가그룹이 무렵 이들 그룹의 건축이념은 거의 현실의 건물로서 구현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을 '건축가'라 칭하는데 어색함을 느끼게도 하지만 그들에 의한 실험적인 모색과 70년대 이후 영미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표방되는 동향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Archigram, 일본의 Metabolism, 유럽의 GEAM 등의 그룹에 속하는 실험적 건축가 및 평론가들은 현실적인 건축물의 구현으로써 보다도 일련의 그래픽의 방법으로 풍요로운 고도기술 사회로서의 20세기 후반의 건축 및 도시상을 매우 풍자적이고 그로테스크하게 예견하였으며, 이러한 예견의 이면에는 다분히 문명비평적인 기

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는 근미래(近未來)에 있어서의 건축 및 도시환경상은 인간환경과 사회의 본질에 관한 통찰에 바탕을 두고 있지 못하였고, 관념속에서 유행적으로 조작된 것으로서 곧 그들의 이념은 현실 속에서의 발붙임을 갖지 못하고 해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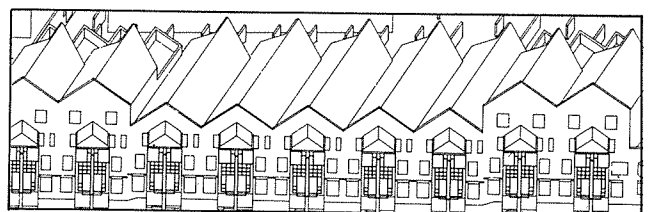
● 포스트모더니즘은 한 뚜렷한 이념을 갖는 'ism' 이라기 보다는 무언가 근대건축과는 달라져야만 하겠다는 현대건축의 원점을 향한 구미신진건축세대들의 다양한 물음들이 통틀어 포괄될 수 있는 경향일런지도 모르는 것으로서, R. Venturii의 저서가 비로소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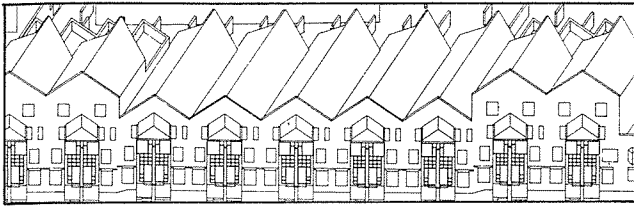
이와 같이 건축사의 주요한 맥락을 돌이켜 볼때 혼성(混性)과 부조화(不調和), 그리고 복고를 표방하는 경향들은 으레히 새로운 시대의 의지를 여실히 주도하고 반영하는 새로운 경향들에 의해 결국 굴복하여 도태되곤 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탈近代主義」는 20세기 후반 통일된 건축이념으로 집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도의 '개인주의', '감각주의', 그리고 '신기성'(神奇性)의 표방 등 저마다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난해한 건축적 표현과 그럴싸한 관념어휘들은 상업주의적인 경쟁이 극심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광활한 설계시장의 영역에서 독보성을 인정받고자하는 노력이며 뿌리없는 이념 - pseudo-ideology 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Team 10' 으로부터 「탈근대주의」에 이르는 현대건축의 경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온 의지중의 하나는, 근대건축에서 상실되었던 것, 즉 건축 및 도시의 제반 정주환경과 그것이 속한 시대와 지역, 그리고 그속에 담겨어지는 현실의 인간이 그 환경과 맺는 심리적, 기능적, 상징적 연쇄관계에 관하여 새로이 인본주의적 관심을 쏟고자하는 소위 풍토주의의 경향일 것입니다. 어느면에서 토속적인 전통건축 folk architecture, vernacular architecture 이 갖는 '인간환경'을 의도적으로 정주환경속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반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시설계의 분야에 있어서 Le Corbusier, Oscar Niemeyer 등의 도시이념, 그리고 전후 영국등지의 신도시개발에서 결과된 개발우선주의의 비인간적 도시상을 반성하고, 새로운 개발보다는 오히려 기존도시의





역사성과 인본성(人本性, human factor)의 희생(廻生)에 관심을 주고자 하는 경향의 일환인 것으로서 사료되며 미국의 Kevin Lynch를 중심으로 하는 학파의 연구태도는 이러한 모색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 한편 건축과 관련된 연구의 영역에 있어서는, 50~60년대 초기 경영 및 사회과학의 영역에 있어서의 OR, 시스템이론등의 합리적인 가측수법(可測手法, operational method)들이 컴퓨터의 발전과 보조를 취하며 진화하자, 이러한 수법들은 곧 도시분야에 있어서는 합리주의적 계획이론(rational planning theory)으로서, 그리고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설계방법(design methodology)의 측면으로써의 이용이 모색되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초기 합리주의적 방법론자들은 주로 물리적인 체계적 소위 도구로서의 기법(instrumental methodology)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실천적,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방법으로 적극 진화할 기틀을 찾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리하여 70년대 이후부터는 건축과 도시라고 하는 정주환경의 물리적 틀속에서 실제의 인간이 여하히 심리적, 생물적 행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부여된 환경을 인식하는가 하는 것, 그리하여 그로부터 인본(人本)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무엇이며 또한 그러한 환경을 제시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측면으로 연구의 영역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에서 지극히 개괄적으로나마 근대 건축으로부터 진화되어온 현대건축의 사조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조는 앞으로 '현대'의 시대상이 또다른 국면의 미래를 향하여 치달음에 따라 그 반영으로서 새로운 건축 및 도시환경의 목표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 예측의 불가측변수(不可測變數, uncontrollable variables)가 점차로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로서는 미래학분야의 의욕적인 탐색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의 정확한 향방의 예측은 인간의 통찰과 제어력 바깥에 놓여져 있는 것 같으며, 동시에 건축 및 도시환경과 관련된 향방역시 적절하고도 단정적인 예측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전술한 바의 환경문제의 의식아래 생각해보면 20세기 거장건축가들로 성숙된 근대건축으로 이어지는 여정중에 면면히 내포되어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관점의 하나인 건축의 도시로의 확대, 즉 건축과 도시의 일체화라고 하는 관점은 앞으로 더욱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야만 하

는 것이 아닐까 하며, 이러한 인식이 건축의 향방의 기초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을 생각하는 방법으로 도시를 생각하고 동시에 도시를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을 만들자고 하는 태도는, 특히 CIAM 및 그 이후의 건축 세대에 의해 계승되어 왔으며 나아가서는 인간과 건축, 도시, 그리고 그것들의 본연의 바탕으로서의 자연환경까지를 포함한 총체적인 환경개념의 인식을 통하여 건축과 도시를 바라보자고 하는 '환경주의'(environmentalism)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도시들은 대체로 자발적으로 생겨나서 건축과 도시를 分散하여 생각할 수가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도시는 밀집화되고 거대화되어 그 도시생태는 극도로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 부분과 유리된 전체, 그리고 도시와 유리된 건축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광화문에서서 새로지어진 대형 오피스건물들을 바라보고있을때 조선조(朝鮮朝) 도읍시절의 중심가로서의 이미지를 압도하고 있는 그 건물들이 비록 하나하나의 건물단위로서는 아주 현대적으로 잘 처리된 것 일른지도 모르지만 과연 어떠한 의미를 주어져야할 것인지 당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변에 새로 세워진 취락상태가 과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 한국건축은 한국근대사의 비극만큼이나 그 정통성이 계승될 충분한 배양액을 갖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내적성숙이 성취될 겨를이 없이 항상 외적인 이식이 몰아닥쳤고 여하히 그것에 적용하는가에 급급한 과정이 한국의 현대건축사를 이끌어온 것임을 이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전문 영역과 그 전문가는 교육으로부터 탄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건축교육계 역시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요청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확장된 의미의 건축으로 다룰수 있는 전문가의 배양을 위해 재편되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건축세대로의 이행이 엿보이는 시점에서, 도래(到來)하는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도를 제시하는 의무와 권리는 아울러 우리 건축전문가가 지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언가 부단한 제도화 의식의 개편, 그리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성적인 건물에의 관심을 보다 확대된 환경의 부분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지식의 전환이 뒤따라야만 미래의 한국사회에서 건축전문가의 창조자로서의 지위가 확보될 것입니다.

미래에 놓인 방대한 정주환경 구현작업-이를테면 500만호의 주택건설(?)-과 관련된 책무가 우리의 전문영역에 주어지고, 그리하여 그것이 건축사상 영광된 업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중대한 오점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갈림길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봅니다. (*)